

국제원자재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['23.1월]

- 국제유가,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저점을 높여 나갈 가능성 -

오정석 | 전문위원(3705-6231)

동향

- [원자재지수] 12월 S&P GSCI는 중국 코로나 확산세, 세계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2개월 연속 하락(-1.8%). 에너지 부문이 약세를 주도한 반면 산업금속과 농산물, 귀금속은 반등
 - 부문별로 에너지 -3.9%, 농산물 +1.3%, 산업금속 +0.6%, 귀금속 +4.4% 등
 - '22년 연간 상승률은 S&P GSCI +8.7%, 에너지 +14.2%, 농산물 +5.7%, 산업금속 -9.6%
- [품목별] WTI -0.4%, 美 천연가스 -35.4%, 유럽천연가스 -47.1%, 靑 휘발유 +6.5%, 옥수수 +2.5%, 소맥 +2.7%, 대두 +3.4%, 구리 +1.6%, 알루미늄 -4.0%, 니켈 +11.3% 등
 -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온화한 겨울날씨, LNG 수입 증가 등으로 급락. 8월말 최고점 기록 후 전체적으로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급등과 급락을 반복

주요 이슈 및 전망

- [원유] 연준의 매파적 성향, 세계경제에 대한 우려 등 하방요인이 여전히 지배적 이슈로 자리매김 하겠으나 ▲달러강세 둔화 ▲러시아 감산 시사 ▲美 SPR 재비축 등 상방요인도 상존하는 만큼 국제유가는 박스권 하에서 저점을 서서히 높여나갈 가능성
 -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는 점진적인 일상회복과 원유수요 회복을 촉진하겠으나, 단기적으로는 확진자 폭증과 경제활동 위축을 통해 원유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
 - 한편 미국을 포함한 OECD의 원유재고 재비축 가능성은 국제유가 하방경직성 강화 요인
- [곡물] 중국 봉쇄 완화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감이 단기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세계 수급 상황을 감안하면 곡물가격 전반의 상승추세 재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기상조
 - 남미 농업기상여건과 함께 달러화 움직임, 국제유가(→바이오연료 가격을 통해 원료인 곡물가격에 영향) 등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
- [비철금속] 중국 코로나 확산세, 세계경제 우려 등 불확실한 상황이 여전해 비철금속 가격은 당분간 방향성 탐색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
 - 펀데멘탈을 감안하면 전월 중반 이후의 반등세가 이어질 지 미지수. 단기적으로 차익실현과 저가 매수세가 혼재하며 등락을 반복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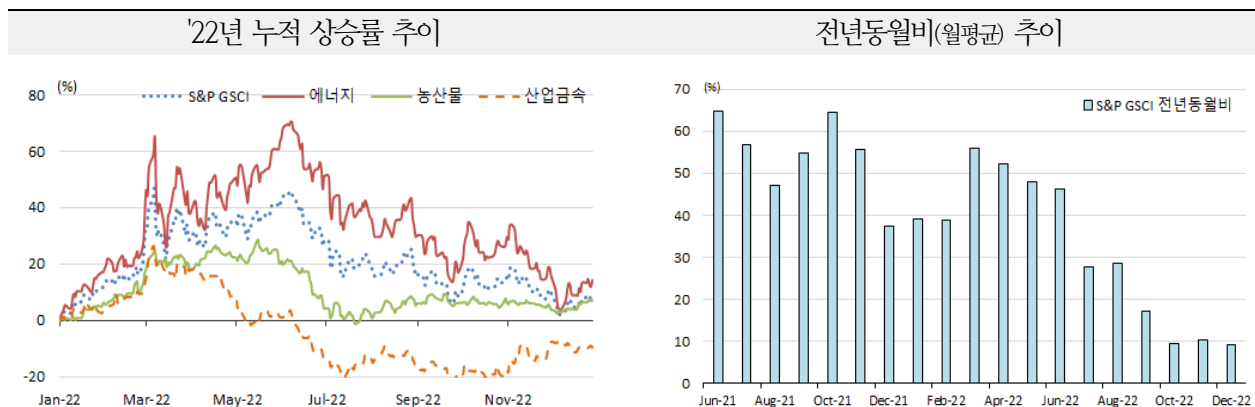
1. 국제원자재 가격지수

□ S&P GSCI 추이

- 12월 S&P GSCI는 中 코로나 확산세, 세계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2개월 연속 하락(-1.8%). 에너지 부문이 약세를 주도한 반면 산업금속과 농산물, 귀금속은 반등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자료 : Bloomberg

지수	11월말	12월말	전월비(%)	연간(%)	전년동월비(%)
S&P GSCI*	621.11	610.07	-1.8	8.7	8.7
에너지	299.85	288.11	-3.9	14.2	14.2
농산물	464.65	470.53	1.3	5.7	5.7
산업금속	448.39	451.14	0.6	-9.6	-9.6
귀금속	2294.95	2396.09	4.4	0.2	0.2
축산물	349.80	357.09	2.1	10.9	10.9

* WTI, 美천연가스, 소맥, 옥수수, 원당, 구리, 니켈, 금 등 24개 품목 선물가격으로 구성. 자료 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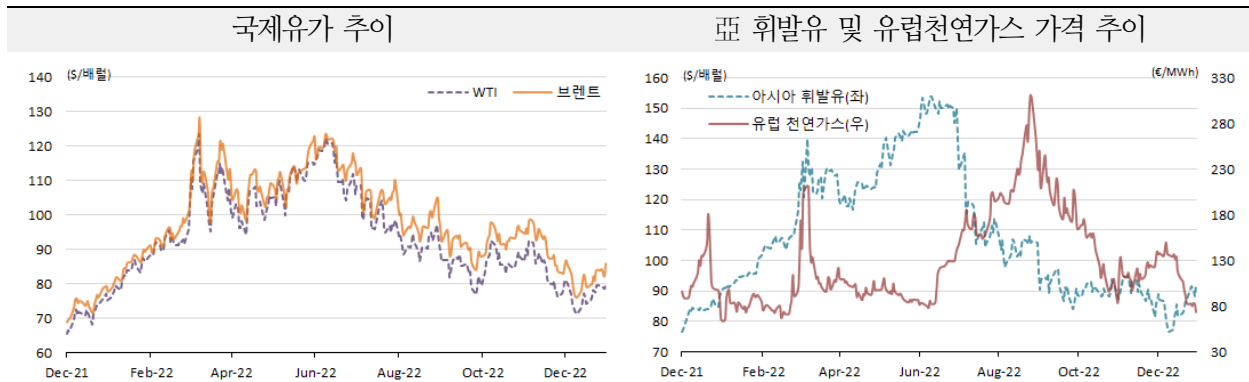
2. 원유

□ [12월 시황] WTI 전월말 대비 -0.4%, 亞 휘발유 6.5%, 유럽 천연가스 -47.1%

- WTI는 세계 경기침체 우려로 월초 연중 최저치(\$71)로 하락했으나 美 인플레이션 둔화, 中 방역 완화, 저가 매수세 유입 등으로 월 중반 이후 반등하며 낙폭을 대부분 만회
-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온화한 겨울날씨, LNG 수입 증가 등으로 급락. 8월말 최고점 기록 후 전체적으로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급등과 급락을 반복

품목	11월말	12월말	전월비(%)	연간(%)	전년 동월비(%)	평균가격	
						'21.	'22.
WTI(\$)	80.55	80.26	-0.4	6.7	6.7	68.08	94.33
브렌트(\$)	85.43	85.91	0.6	10.5	10.5	70.95	99.04
두바이(\$)	80.21	78.66	-1.9	2.9	2.9	69.01	97.03
美휘발유(\$)	101.58	103.30	1.7	10.4	10.4	89.13	124.67
亞휘발유(\$)	86.73	92.40	6.5	2.3	2.3	76.97	109.73
美천연가스(\$)	6.930	4.475	-35.4	20.0	20.0	3.723	6.542
유럽천연가스(€)	140.00	74.00	-47.1	13.0	13.0	47.38	132.34

주 : NYMEX·ICE 선물가격 기준(유럽천연가스는 네덜란드 TTF). 단 두바이유, 亞휘발유(Ron 92 기준)는 현물가격. 자료 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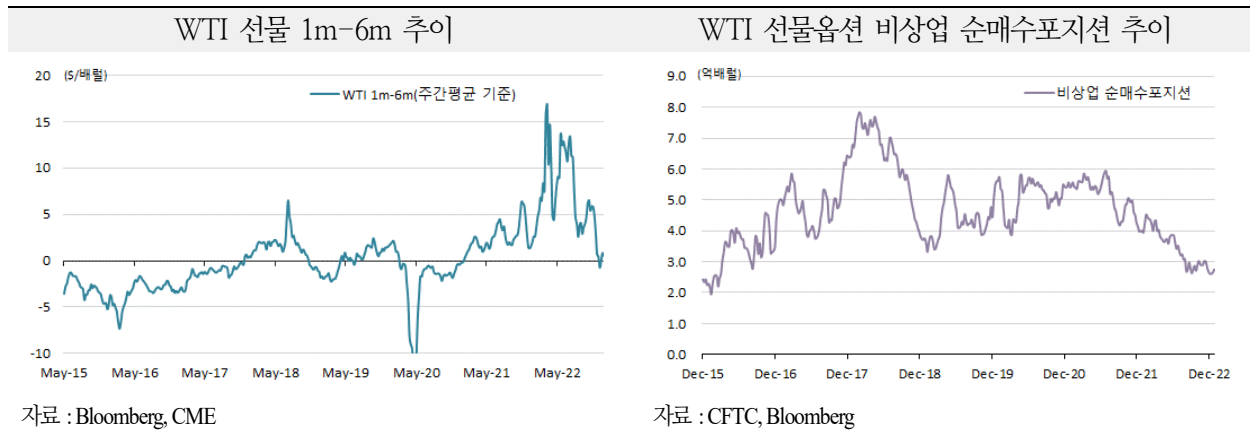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Bloomberg, C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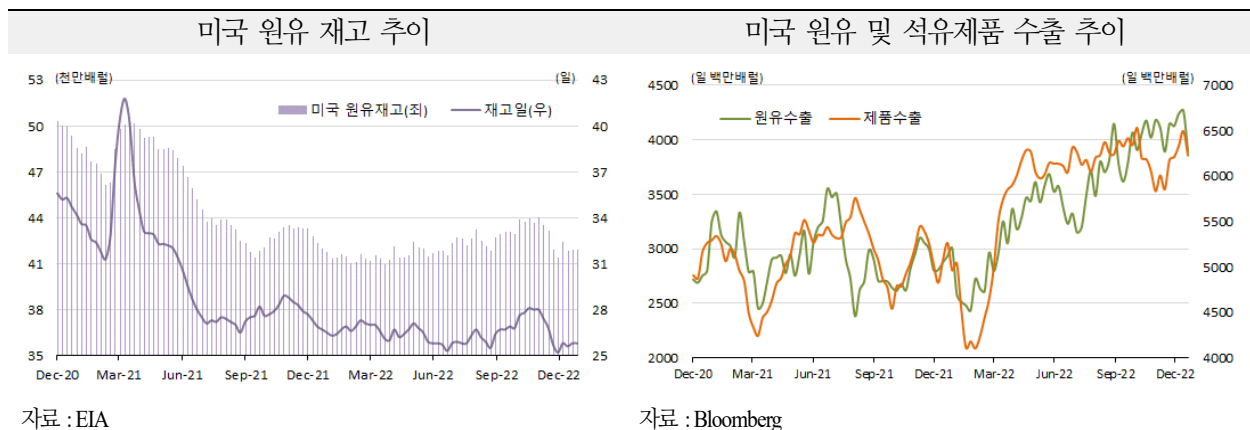
자료 : Bloomberg

□ 주요 원유 선물시장 및 실물 지표 점검

- WTI 선물시장 지표 : 백워드이션 대폭 약화, 금융자금은 11월 중순 이후 감소
 - WTI 1개월물과 6개월물 스프레드(1m-6m)는 12월 중 한때 마이너스(콘탱고)를 나타낸 가운데 12.30일 \$0.5로 연중 최저 수준 유지 → 경기침체 및 수요둔화 우려를 반영
 - WTI 선물옵션의 비상업 순매수포지션은 11월 중순까지 3억배럴 내외를 유지했으나 이후 감소하며 12.27일 2.75억배럴 기록(6년래 최저 수준) → 위험회피 심리를 반영



- 미국 실물지표 : 원유재고 정제, 석유제품재고 증가, 원유수출 역대 최고치, 수요 부진
 - 원유재고는 12.23일 4.19억배럴로 11월말 이후 큰 변화가 없는 상황. 휘발유재고는 2.23억배럴로 연중 최저치인 11월초 대비 8%, 증류유재고는 1.2억배럴로 13% 증가
 - 원유수출은 12.23일 일일 389만배럴로 금년 들어 89만배럴(+30%) 증가. 석유제품 수출도 11월 중순 이후 회복세로 돌아서며 금년 들어 25% 증가
 - 원유수요는 12.23일 일일 2,083만배럴로 전년동기 대비 -2.6%. 다만 5년 평균(20년 제외) 대비로는 +1.3%



- OPEC 및 중국 지표 : 사우디 OSP(對亞 1월인도분) 하향, 中 수입 두 달째 두 자리 수 증가

	9월	10월	11월	비고
OPEC생산(일 백만배럴)*	29.70	29.57	28.83	• 11~12월 감산 시행의 영향
사우디 생산*	11.01	10.88	10.47	• 전월비 -40만배럴(전체 OPEC 감산의 54%)
사우디 OSP(對亞)**	\$5.9(11월인도)	\$5.5(12월인도)	\$3.3(1월인도)	• 9월 인도분(최고점) 대비 -\$6.55
중국 원유수입(백만톤)**	40.24	43.14	46.74	• 전년동월 대비 +12%(연간으로는 -1.5%)

주 : OSP(Official Selling Price)는 두바이유/오만유 대비 프리미엄을 의미. 자료 : *OPEC, **Bloomberg

□ [이달의 관전포인트] 중국 봉쇄 완화, 세계수요 불확실성, 미국 SPR 재비축 등

○ 중국 코로나 봉쇄 완화는 양날의 검

- 중국은 전월 코로나19 확진자의 자가격리 허용,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등 방역 정책을 대폭 완화하며 위드 코로나로 선회. 이에 따라 점진적인 일상회복과 더불어 원유수요 회복이 기대(※작년 中 원유수요는 개혁개방 본격화 이후 첫 감소 추정)
- 하지만 확진자가 폭증(통계발표는 중단)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경제활동 위축이 불가피해 보이고 원유수요 회복도 지연될 가능성

○ 세계 경기침체 가능성 상존으로 글로벌 원유수요 불확실성 가중

- 국제에너지기구(IEA)는 12월 보고서에서 中 수요회복, 유럽 가스대체 등으로 금년 세계수요 전망을 전월보다 하루 10만배럴 상향조정. 다만 주요 예측기관들이 내년 세계경제 침체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

○ 미국 전략비축유(SPR) 재비축 계획

- 美 SPR은 러-우 전쟁 이후 대규모 방출로 12.23일 현재 3.75억배럴로 감소(38년래 최저치). 에너지부는 국제유가 \$67~72에서 재비축을 예고한 바 있으며, 2월부터 3백만 배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비축에 나설 가능성

○ 러시아 유가 상한제의 영향이 서서히 나타날 가능성

- 서방의 러시아산 유가 상한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되었으나 세계 경기침체 우려 등 다른 이슈에 가려 아직까지 그 영향은 제한적. 하지만 맞대응 차원에서 러시아가 감산(빠르면 1월부터 일일 50~70만 배럴)을 천명함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가시화될 소지

□ [전망] 연준의 매파적 성향, 세계경제에 대한 우려 등 하방요인이 여전히 지배적 이슈로 자리매김 하겠으나 ▲달러강세 둔화 ▲러시아 감산 시사 ▲美 SPR 재비축 계획 등 상방요인도 상존하는 만큼 국제유가는 박스권 하에서 저점을 서서히 높여나갈 가능성

- 미국 뿐만 아니라 OECD 전체적으로 원유재고 재비축에 나설 경우 국제유가 하방 경직성이 강화될 소지(※'22. 3Q말 OECD 재고는 5년평균 대비 -5%, EIA)

〈주요 투자은행들의 국제유가 전망(\$/배럴)〉

	12월(a) ¹⁾	'23.1Q(f) ²⁾	2Q(f) ²⁾	3Q(f) ²⁾	4Q(f) ²⁾
WTI	76.52	86(-4)	88(-2)	83.8(-2.4)	85.4(-9.6)
브렌트	81.34	90(-5)	88(-7)	86.4(-7.2)	87.3(-12.8)

주. 1) 12월 평균값 2)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(median), ()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. 자료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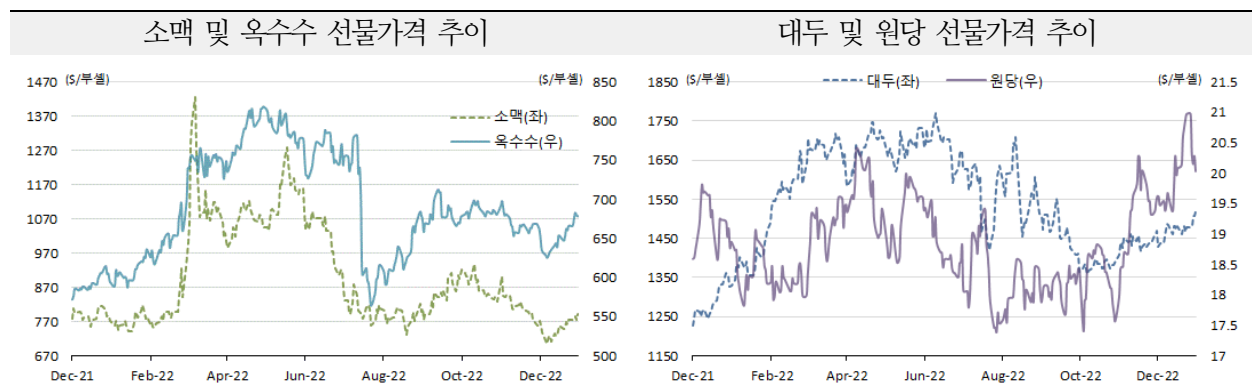
3. 곡물

□ [12월 시황] CBOT 소맥 전월 대비 +2.7%, 옥수수 +2.5%, 대두 +3.4%

- 전반적으로 월초 약세를 나타낸 후 미국의 농업기상여건 악화, 국제유가 반등, 中 코로나 봉쇄 완화, 달러 약세, 저가 매수세 유입 등으로 반등
- 소맥은 美 대평원의 강추위가 러시아 등의 수출호조를 상쇄하며 3개월만에 상승 전환. 옥수수와 대두의 반등은 국제유가 상승과 저가매수세 등의 영향으로 평가

품목	11월말	12월말	전월비(%)	연간(%)	전년 동월비(%)	평균가격	
						'21.	'22.(ytd)
소맥(cents/부셸)	771.5	792.00	2.7	2.8	2.8	702.0	901.67
옥수수(cents/부셸)	662	678.50	2.5	14.4	14.4	581.9	693.89
대두(cents/부셸)	1469.5	1519.25	3.4	14.3	14.3	1374.7	1550.66
쌀(\$/cwt)	17.81	18.05	1.3	23.4	23.4	13.3	16.51
원당(cents/파운드)	19.63	20.04	2.1	6.1	6.1	17.9	18.82

주 : CBOT-ICE 선물가격 기준. 부셸은 27.2kg, cwt는 45.4kg. 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, CBOT

자료 : Bloomberg, CBOT, ICE

□ 세계 곡물시장 주요 지표 점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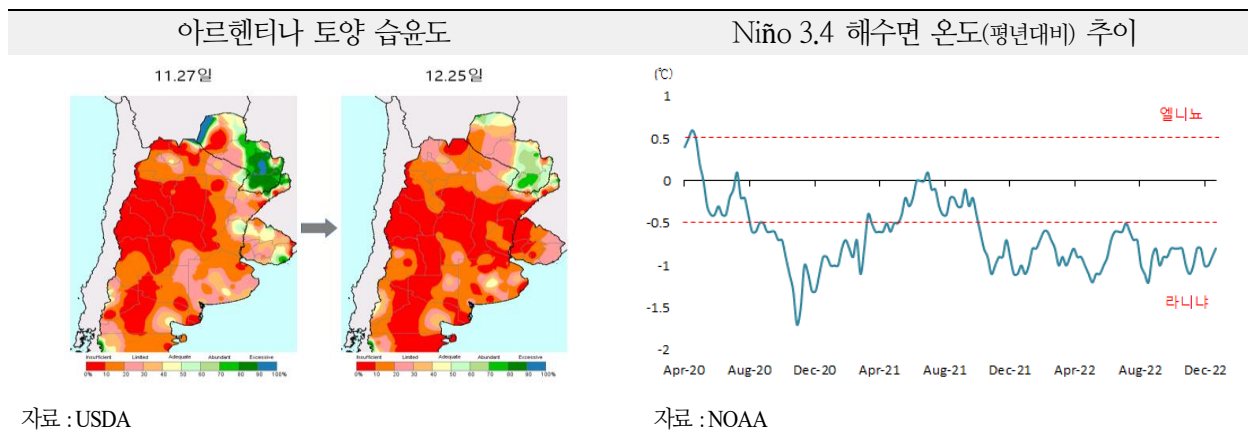
- 남미 파종 : 아르헨티나 대두 파종률은 12월 중순까지 60.6%에 불과(전년동기 대비 -12.6%p). 옥수수 파종률은 51.8%로 전년동기 대비 -8.4%p(Buenos Aires Grains Exchange)
- 전월 후반 강우로 파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나 파종이 지연된 만큼 작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우려(※최근 Rosario Grains Ex.는 가뭄 영향으로 소맥 생산 전망을 3% 하향조정)
- 브라질의 대두 파종은 작년보다 지연된 가운데 마무리.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나 금년에 역대 최고 생산량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한 상황(※'22/23년 대두 생산량은 1.52억톤으로 전년보다 20% 증가 예상)

○ 중국 곡물 수입 : 11월 대두 수입 감소, 12월에는 증가 예상

- 11월 대두 수입은 735만톤으로 전년동월 대비 -14%, 1~11월 수입은 8,053만 톤으로 전년 대비 -8.1%. 하지만 12월에는 ▲코로나 봉쇄 완화에 따른 수요 증대 ▲낮은 대두박(soybean meal, 가축 사료) 재고 등으로 수입이 늘어날 전망

○ 농업기상여건 : 아르헨티나 가뭄 지속, 美 겨울밀 동해(凍害) 우려

- 아르헨티나 가뭄은 북부와 동부 지역이 특히 심하며, 강수량 부족이 장기화되면서 토양 습윤도가 매우 낮은 상황. 이는 농작물에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(World-grain .com)
- 파종이 끝난 美 겨울밀은 대평원 지역(Great Plains)의 강력한 한파의 피해가 우려. 한편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라니냐 현상은 금년 2월 종료 가능성(NOAA)



○ 세계 곡물수급 : '22/'23년 세계 생산 및 재고 전망 하향조정, 대두 전망은 상향

<세계 곡물수급 전망(억톤)>

	'21/22	'22/23		전년비	전월비		'21/22	'22/23		전년비	전월비
		11월	12월					11월	12월		
곡물						소맥					
생산	27.97	27.46	27.37	-2.1%	-0.31%	생산	7.79	7.83	7.81	0.2%	-0.3%
소비	28.05	27.77	27.70	-1.3%	-0.2%	소비	7.93	7.91	7.90	-0.5%	-0.2%
기말재고	7.93	7.63	7.60	-4.1%	-0.4%	기말재고	2.76	2.68	2.67	-3.2%	-0.2%
재고율	28.3%	27.5%	27.4%	-0.9%p	-0.1%p	재고율	34.8%	33.9%	33.9%	-0.9%p	-
옥수수						대두					
생산	12.17	11.68	11.62	-4.5%	-0.56%	생산	3.56	3.91	3.91	10.0%	0.2%
소비	12.02	11.75	11.71	-2.6%	-0.4%	소비	3.63	3.80	3.81	4.8%	0.2%
기말재고	3.07	3.01	2.98	-2.8%	-0.8%	기말재고	0.96	1.02	1.03	7.4%	0.5%
재고율	25.5%	25.6%	25.5%	-	-0.1%p	재고율	26.3%	26.9%	27.0%	+0.7%p	+0.1%p

자료: USDA WASDE('22.12월)

□ [이달의 관전포인트] 러시아 수출, 브라질 전망, 금융자금 동향, 에탄올 관련 등

- 12월 러시아 소맥 수출 역대 최고치 근접 가능성
 - 이에 힘입어 7~12월 러시아 소맥 수출은 전년동기보다 2% 증가할 전망(Sovecon). 전체 곡물수출은 2,600만톤으로 10% 증가 예상(Russian Union of Grain Exporters)
 - 수출증가는 ▲역대급 생산 ▲루블화 약세 ▲국제가격 안정 등에 기인. 주 수출항로인 흑해지역의 기상이 악화하지 않는 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질 전망
- 브라질 곡물생산 전망 하향. 다만 사상 최고치 전망은 유지(CONAB)
 - 금년 옥수수 생산 전망은 1.26억톤으로 전월 전망 대비 0.5% 하향조정, 대두 생산 전망도 1.53억톤으로 소폭 하향조정. 일부 경작지역의 건조한 날씨로 수율(yield)이 다소 낮아질 것이라는 점에 기인
 -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동 수치는 전년도를 상회하는 역대 최고치로, 농업기상여건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
- 금융자금 : 소맥과 옥수수는 유출, 대두는 유입
 - CBOT 소맥의 금융자금 순매수포지션은 11월초 -1.9만계약 → 12.27일 -3.7만으로, 옥수수는 32만 → 21만으로 감소. 반면 대두 순포지션은 9만 → 13만으로 증가. 中 봉쇄 완화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
- 美 에탄올 생산 및 재고 증가
 - 에탄올 생산은 12.23일 하루 103.2만배럴로 연중 최고치(6.17일 하루 105.6만배럴)에 근접. 다만 수요가 부진해 재고도 2,464만배럴로 11월 중순 이후 16% 증가(EIA)

□ [전망] 中 봉쇄 완화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감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세계 수급 상황을 감안하면 곡물가격 전반의 상승추세 재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기상조

- 남미 농업기상여건과 함께 달러화 움직임, 국제유가 등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

〈주요 투자은행들의 국제곡물 전망(cents/부셸)〉

	12월(a) ¹⁾	23.1Q(f) ²⁾	2Q(f) ²⁾	3Q(f) ²⁾	4Q(f) ²⁾
소맥	748.23	758(-42)	740(-60)	720(+45)	741(+66)
옥수수	650.86	615(-10)	627(-43)	575(-)	573(-3)
대두	1,474.42	1,375(+25)	1,380(-20)	1,300(+100)	1,270(+70)

주: 1) 12월 평균값 2)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(median), ()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. 자료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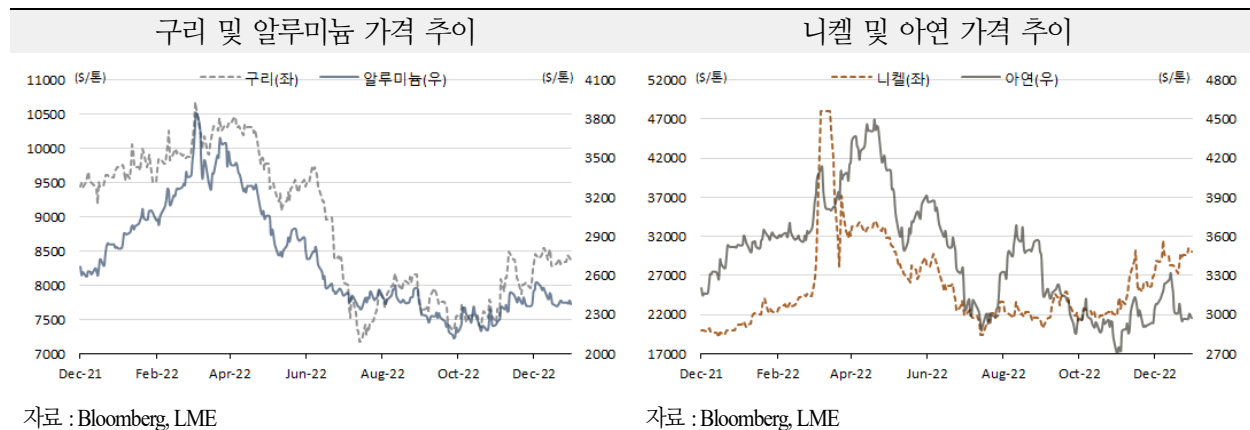
4. 비철금속

□ [12월 시황] LME 구리 가격 전월말 대비 +1.6%, 알루미늄 -4.0%, 니켈 +11.3% 등

- 구리 가격은 중국 봉쇄 완화에 따른 수요 기대감에 힘입어 월 초반 6개월래 최고치 기록 후 中 신규 확진자 급증과 세계경제 우려 등으로 상승폭 축소
- 니켈 가격은 러시아의 감산 계획 발표 및 2차전지 관련 수요 등으로 3개월 간 40% 상승. 알루미늄은 중국 수입 큰 폭 감소 등으로 3개월 만에 하락

품목	11월말	12월말	전월비(%)	연간(%)	전년 동월비(%)	평균가격	
						'21.	'22.(ytd)
구리(\$/톤)	8,239	8,372	1.6	-13.9	-13.9	9,293.5	8,788.4
알루미늄(\$/톤)	2,478	2,378	-4.0	-15.3	-15.3	2,485.9	2,710.9
니켈(\$/톤)	26,987	30,048	11.3	44.8	44.8	18,466.9	25,617.5
아연(\$/톤)	3,037.5	2,972.5	-2.1	-15.9	-15.9	3,007.3	3,439.6
납(\$/톤)	2,193	2,293	4.6	-0.5	-0.5	2,189.4	2,144.6
금(\$/온스)	1,768.52	1,824.02	3.1	-0.3	-0.3	1,799.3	1,802.5
철광석(\$/톤)	96.91	108.63	12.1	-4.8	-4.8	136.0	112.9

주 : 철광석은 호주산 중국 북부행 순도 62% 기준. 자료 : Bloomberg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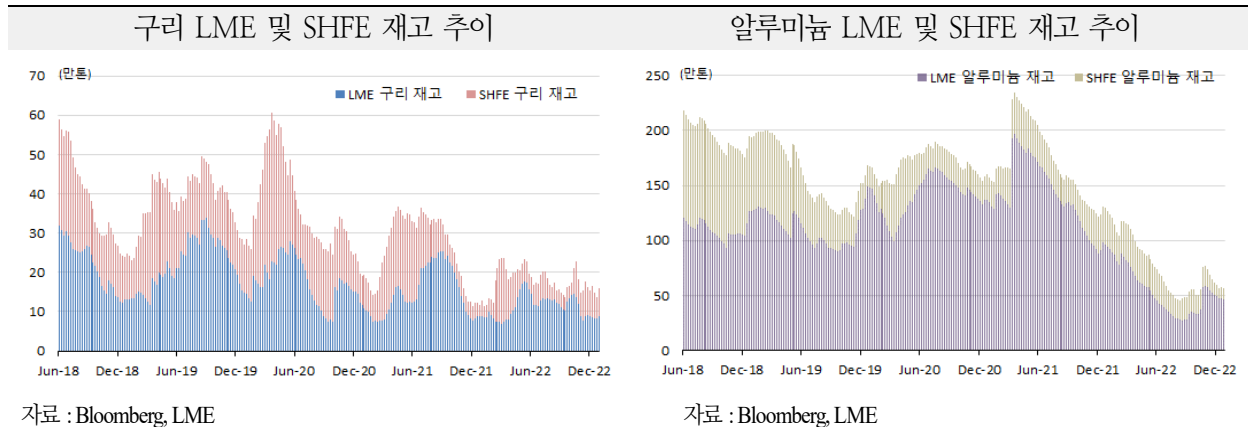
□ 주요 지표 점검

- 중국 경기 : 제조업지수 부진 지속, 산업생산 둔화, 기존 주택가격 16개월 연속 하락

	10월	11월	12월	비고
차이신 PMI	49.2	49.4	47.0	• 5개월 연속 기준선(50) 하회, '20. 3월 이후 최저
산업생산(% yoy)	5.0%	2.2%	-	• 11월 예상치(3.6%) 하회
기존 주택가격(% mom)	-0.47%	-0.44%	-	• 16개월 연속 하락, 11월 주택거래 -34.5%

자료 : Bloomberg

- 거래소 재고 : 별다른 변동 없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 유지
 - 12.30일 구리 재고는 한 달 전 대비 LME에서 0.2만톤, SHFE에서 0.1만톤 각각 감소
 - 니켈 재고는 LME에서 0.4만톤 증가했으나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수준
 - 알루미늄 재고는 LME에서 -5.6만톤, SHFE에서 -1.4만톤 등 상대적으로 큰 폭 감소



□ [이달의 관전포인트] 구리 공급부족 가능성, 中 비철금속 수입, 印尼 보크사이트 금수 등

- 금년 세계 구리 수급, 공급부족 가능성(Goldman Sachs)
 - ▲투자부진에 따른 광산 공급전망 하향조정(특히 칠레) ▲중국의 태양광 등 친환경 관련 수요전망 상향 등으로 17.8만톤(세계 수요의 0.6%) 공급부족 예상(※기존 전망은 16.9만톤 공급초과)
 - 중국의 경제 재개방이 빠르게 진전될 경우 재고 재비축(restocking) 관련 수요도 본격화 되면서 타이트한 수급 여건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(※중국이 '20년 이전 수준으로 재고 비율을 유지할 경우 50만톤의 추가 수요 발생)
- 중국 11월 구리 수입 증가, 알루미늄은 감소
 - 비가공구리 및 구리 제품(unwrought copper/copper product) 수입은 정부의 경기부양과 코로나 봉쇄 해제에 따른 수요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전년동월 대비 5.8% 증가한 54만톤 기록. 1~11월 수입은 전년동기보다 8.5% 증가
 - 반면 알루미늄 수입은 35.7% 감소한 25.6만톤 기록. 이는 탄탄한 국내생산(+9.4%)과 수요부진 등에 기인(※1~11월 생산 3,677만톤, 전년동기 대비 +3.9%)
- 인도네시아, 금년 6월부터 보크사이트(알루미늄 원료) 수출 금지
 - 국내 알루미늄 가공 및 정제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크사이트 원광 수출을 금지하고 가공된 형태의 수출만 허용(※'14년에도 광물산업 발전 및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가공되지 않은 광물의 수출을 금지한 바 있음)

- 인도네시아는 세계 5~6위 보크사이트 생산국이나 국내 제련 시설은 크게 부족. 이번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글로벌 알루미늄 공급 차질이 발생할 우려

○ 중국 부동산 경기 금년 중반 이후 회복 가능성

-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과 상하이 등 1선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경기가 봉쇄 완화 및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금년 중반을 기점으로 반등할 전망(South China Morning Post)

□ [전망] 중국 코로나 확산세, 세계경제 우려 등 불확실한 상황이 여전해 비철금속 가격은 당분간 방향성 탐색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

- 펀더멘탈을 감안하면 전월 중반 이후의 반등세가 이어질 지 미지수.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과 저가 매수세가 혼재하며 등락을 반복할 전망
- 세계 수요의 50%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수요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기 전까지 추세적인 상승세는 기대난
- 일부에서 제기한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상승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필요
- 역사적으로 낮은 재고 수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철금속 시장이 강제로 돌아서면 물량 확보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둘 필요

〈주요 투자은행들의 국제 비철금속 전망(\$/톤)〉

	12월(a) ¹⁾	'23.1Q(f) ²⁾	2Q(f) ²⁾	3Q(f) ²⁾	4Q(f) ²⁾
구리	8,402.5	7,638(+506)	7,750(+56)	8,000(+688)	8,403(+684)
알루미늄	2,434.7	2,300(+150)	2,375(+85)	2,400(+225)	2,519(+82)
니켈	29,121.6	23,750(+3,750)	23,500(+4,000)	23,000(+3,480)	22,625(+3,500)
아연	3,104.2	3,050(+50)	3000(-)	3,007(-93)	3,058(-35)

주: 1) 12월 평균값 2)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(median), ()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. 자료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,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
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문의: 02-3705-6231 혹은 js@kcif.or.kr, 홈페이지: www.kcif.or.kr